

『여자의 일생(女坂)』에 그려진 女性像

黃海玉*

目次

- 1.1. 서론
 - 1.2. 억제된 自我
 - 1.3. 자식을 통한 대리만족
 - 1.4. 自尊을 향한 노력
 - 1.5. 굴레에서 자유로
 - 1.6. 결론
-

1.1. 서론

『여자의 일생(女坂)』은 엔치 후미코(円地文子)가 44세 되던 1949년부터 약 8년간에 걸쳐 쓰여진 희유의 걸작이다.¹⁾ 이 작품은 1958년 노마(野間)文芸賞을 수상할 정도로 구성의 짜임새는 물론 세부적인 표현의 치밀함과 여주인공의 움직임 등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여자의 일생』의 여주인공 도모(倫)는 남편의 패륜적 행동으로 인내심을 배우며 집을 위해 희생했다. 도모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작은 행복과 조심스러운 조화(『여자의 일생』, 전집6, P.114)였다. 도모는 지금까지 ‘집이라는 비정한 세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온 것을 새삼 느끼며 안타까워한다. 본 논문에서는 완고한 제도로 얽매인 집에서 진정한 자신의 삶, 즉 自我와 自尊을 죽음 직전에 발견한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일본여성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자의 일생』을 논한 종래의 연구는 단순히 봉건적인 틀에서 남자와 여자를 취급한 경향이 많다. 타카미 준(高見順)은 도모의 일생을 통해 보편적인 여성의 슬픔을 맛볼 수

* 동덕여자대학 (박사과정)

1) 타카미 준(高見順),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에토오 준(江藤 淳)이 희유의 걸작이라고 평함. 江藤淳, 新潮文庫『女坂』解説, 新潮社, 1961

있으며 자신의 분노를 사회에 표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²⁾ 한편 에토 준(江藤 淳)은 도모의 비극적 원인은 그녀가 가식적으로 집에 헌신한 끝에 본래 여성이 지켜야 하는 실제인 에로스를 잃어버린 점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³⁾

따라서 본 논문은 여주인공 도모에 초점을 맞추어 그녀의 自我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거듭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여인, 어머니, 아내의 삶을 산 도모가 자신의 自我와 自尊을 향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엔치문학에서 <여성상>이 진정 어떤 모습으로 정립되었는지 알기위한 필요과제라고 생각된다.

1.2. 억제된 自我

『여자의 일생』의 여주인공 도모(倫)가 남편을 향한 질투와 분노를 참으며 자신의 自我를 억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남편을 하늘로 섬기는 것을 자신의 생활신조로 여겨온 도모에게는 남편의 무리함에 배반하는 것은 자신을 동시에 잃는 것이었고 그러한 신조 이상으로 도모는 무정한 남편을 사랑했다. (『여자의 일생』, 전집, P.20)

良人を天として仕えることを自分の生活の信条にしている倫にとっては良人の無理に背くことは自分を同時に失うことだったし、そういう信条以上に倫は無情な良人を愛していた。

도모는 ‘민첩하고’ ‘풍채가 좋은’ (『여자의 일생』, 전집, P.12) 남편 유키토모(行友)에게 아직도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다. 문란한 여자관계와 첩을 구하라는 명을 받으면서도 남편을 하늘처럼 사랑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엔치도 언급한 것처럼 도모가 남편에게 영웅숭배의 감정을⁴⁾ 느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일본여성사(日本女性史)』에는 당시 사회상을 ‘남편은 군주처럼 아내는 하인처럼⁵⁾’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 뿐인가 아내는 戸主에 부속된 인격으로⁶⁾ 사회적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애정이 없었다면 이 같은 사회적 철칙을 외면한 채 얼마든지 이혼하거나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이다. 도모가 한 발 앞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남편이 준 돈으로 타향에서 토지를 매입해 관리하거나 장사를 하며 좋은 남자를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모는 냉정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첩을 구하는 복종행위를 택한다. 도모는 복종이야

2) 高見順, 円地文子全集 第六卷, 『女坂』解説, 新潮社, 1977, PP.430-433

3) 江藤淳, 新潮社文庫版 『女坂』解説, 新潮社, 1961, PP.215-216

4) 円地文子, 『円地文子全集 第十五卷』, 新潮社, 1977, P.129

5) 宮城栄昌/山田武磨編, 『日本女性史』, 吉川弘文館, 1974, P.150

6) 宮城栄昌/山田武磨編, 앞의 책, P.147

말로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가슴속에 숨쉬는 욕망과 정서를 이해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엔치도 지적하듯이 도모는 지적인 소양⁷⁾과 自我가 숨쉬는 여인이었다. 이처럼 남편의 무리함을 배반하는 것은 자신을 곧 잃는다는 생각을 할 만큼 도모는 자신의 自我를 포기하면서까지 남편을 사랑했다.

눈앞에 남편과 스가(須賀)의 뒤엎힌 사지가 떠오르고 머리에 피가 솟아 도모는 악몽을 제거하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 (중략) -- 남편이 다른 여자의 것이 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해야하는 괴로움에 에타는 것이다. -- (중략) -- 남편을 죽이는 꿈을 꾸고 자신의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여자의 일생』, 전집6, P.20)

眼の前に良人と須賀のからみあった四肢が浮び、頭へ血が上って来て、俺は悪夢をはらいのけるように眼をみひらいた。-- (中略) -- 良人が外の女のものになるということを、公然と認めなければならぬ辛さが、身を焼くのだった。-- (中略) -- 良人を殺すゆめをみて、わが声に驚いて眼ざめた。

봉건적 가족제도에서 질투는 금물이었다.⁸⁾ 도모 역시 이 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남편과 첩 스가에 대한 질투는 소멸할 수 없었다. 그만큼 도모는 자신의 생각과 自我를 갖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自我를 억제하며 질투심을 참았던 이유는 아직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性행위에서 수동적인 자세밖에 취할 수 없었던 도모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도모의 좌절된 사랑은 꿈속에서 남편을 죽이는 행동을 취하기에 이른다. 도모는 질투를 느낄 만큼 自我와 自尊이 살아 숨쉬는 여인이었다. 고통을 주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남편이었기에 무의식중에 그를 죽이는 自我가 꿈틀거렸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은 自我가 무의식중에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의 억압된 自我는 꿈이라는 세계를 통해 표출된 셈이다. 남편을 위해 自我를 희생했지만 도모에게 돌아온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가치하락뿐이었다. 첩을 구하라는 노골적인 발언 자체가 도모를 더 이상 여성으로 볼 수 없다는 절망감을 표명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모가 느끼는 절망의 밑바탕에는 사랑의 열정만큼 큰 배신감이 깔려있었다. 예전부터 계획이라도 한 듯 첩을 구하라고 놀랄 만큼의 <돈>을 도모 앞에 내 놓은 것.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일을 맡긴다면 남편이 목수를 불러 방을 만들고 화장대, 옷장, 이불 등 온갖 일에 신경 쓴 것이다

그러나 도모의 실망과 배신감은 과연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어느 날 유미는 스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께 혼날꺼예요.... 이런 몸이 되어 부끄러워요”라며 운다.(『여자의 일생』, 전집6, P.44) 남편은 예의범절을 배울 겸 몸종으로 오게 된 유미(由美)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그러나 두 번째 며느리인 미요(美夜)와의 패륜 때문에 도모는 더 큰 경악을

7) 熊坂敦子, 「円地文子に聞く」,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 1976, 7, P.32

8) 芳賀登, 『近代日本の女たち』, NHK, 1983, P.17

금지 못한다. 도모는 사회제도 때문에 생겨난 억압조차도 생활의 일부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도모도 피가 끓는 여인이었기에 스가와 유미에게 여러 작용을 일으키는 自我의 감정을 억눌렀다. 그러나 애정을 거부당하고 自我를 억제했으나 도모에게 주어진 것은 정신적 지주였던 생활신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불신감이었다. 도모는 남편이 인간으로 갖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양심까지 붕괴된 점이 안타까웠다. 도모는 쾌락만을 쫓는 남편이었지만 그가 윤리적 가치관만은 명확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유키토모에게 여자는 평범한 암컷에 지나지 않았다.(『여자의 일생』, 전집6, P.63) 따라서 인간의 도리와 규칙을 깬 남편에게 분노를 금지 못했다.

타카미 준(高見順)은 『여자의 일생』에는 분노의 이미지가 서려있다고 평하고 있다⁹⁾ 이처럼 도모가 느끼는 분노는 性的욕구를 자제하지 못해 도덕성을 배반한 남편 때문이었을 것이다. 도모의 분노는 작자 엔치도 함께 느끼는 분노였음에 틀림없다.

다시 말해 도모가 느끼는 분노는 스가와 유미, 미요조차도 배후에 둘러싸여 성도락을 감당하기 힘든 수컷 유키토모를 향한 격렬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즉 도모의 분노는 권력을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한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남편이 주체인 <남자>라는 생물 그 자체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¹⁰⁾ 그러나 도모는 왜 이러한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自我를 억제할 때는 자신의 독자적인 삶과 책임감이 결여되었을 때 발생한다. 그렇다면 도모에게는 자신의 주체적 삶과 책임감이 결여되었던 것일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 --(중략)-- 이런 인신매매 같은 무자비한 일을 내가 왜 한 것일까? (『여자의 일생』, 전집6, PP.26-27)

罪なことだと思う。--(中略)-- こんな人買いのような無慈悲なことを自分はどう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らうか。

도모는 딸을 파는 부모의 절실한 애정을 접하며 무심코 한 일이 무자비한 결과로 나타나는 책임감을 통감했다. 도모의 죄의식은 自我의 동요로 이어졌고 반성과 책임감을 다시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엔치 자신도 『마이니치(毎日)신문』에서 『여자의 일생』, 『끓주린 세월(ひもじい月日)』, 『애정의 계보(愛情の系譜)』와 같은 작품은 윤리적인 면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¹¹⁾고 밝혔다. 잡지 『지식(知識)』에서는 도모가 무사 집안에서 태어나 도덕을 철저히 강요당했다고 했다.¹²⁾ 따라서 첩을 돈으로 매수한 자신의 행위가 비록 남

9) 작자의 초기 <분노> - 사회적, 현실적 <분노> 그것이 작자의 미의식에 사회적 시야를 골라내기 힘들게 하는 것을 나는 보고 싶은 것이다. (高見順, 角川文庫版, 『女坂』 解説, 1959, P.433)

10) 눈앞에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며 아무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작은 생물이 언젠가 유키토모처럼, 미치마사처럼, 이와모토처럼 세상의 혼한 남자로 변해 가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다. (『여자의 일생』, 전집6, P.78)

11) 堀 利貞記者, 「背徳的と倫理的と」, 毎日新聞 1976. 2月4日

편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죄를 지었음이 분명했다. 도모의 죄의식은 스가가 치질을 앓고 있을 때 처첩의 관계를 떠나 애처로운 눈으로 간병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남편 때문에 첩으로 전락한 유미를 이복 조카인 이와모토(岩本)와 결혼시킨다. 도모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계획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기에 더 높이 평가된다. 스가와 유미에게 기울인 애정은 미요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미요는 시집은 여자가 목숨과도 같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요가 죽음에 이르자 분노로 얼룩졌던 도모의 自我는 곧 변하기 시작한다. 도모는 절대적인 도리와 규칙 개인적 생각과 감정은 죽음 앞에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미요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그녀는 구시대의 낡은 교육을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시각을 버리고 생명의 자연법칙과 죽음이라는 그 실상의 허망함을 뒤늦게나마 터득하게 된다.

1.3. 자식을 통한 대리만족

도모는 과연 自我와 自尊을 억제하기만 하며 삶을 마감한 것일까? 평생자신의 헌신과 치열한 정열을 편리한 하인의 충성쯤으로 받아들이는 교만하고 방만한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여자의 일생』, 전집, P.34) 도모는 점차 삶의 무게가 더해 갈수록 기성도덕에 의지하지 않고 ‘냉정하게 한 사람의 인간을 비판할 눈’이 생겨났다. 그녀는 비로소 自我와 自尊에 눈뜨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도모에게 남편을 향한 존경심과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自我를 회복할 기회만이 남아있을 따름이었다. 도모는 어린애 따위 없는 편이 낫고 낳지 않는 편이 業을 만들지 않는다고 스가에게 속삭이고 싶어 할 만큼 (『여자의 일생』, 전집6, P.79) 아이가 집에서 탈출하려는 그녀의 意志에 큰 걸림돌이 되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도모는 아이가 자신의 自由를 구속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식이 없으므로 모든 제약을 덜 받는 참 自我의 自由를 만끽할 수 있다고 뒤늦게 인지한 것이다. 그러나 도모는 자신의 自由의지를 실천하기에는 많은 번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도모는 섬겨야 할 남편도 떠받들어야 할 집도 무자비하게 박탈당하던 중 어린 에츠코의 신체만을 꼭 붙잡고 황량한 불모지에 필사적으로 서있다. (『여자의 일생』, 전집6, P.34)

俺は仕えるべき夫も支えるべき家も無慈悲に剥ぎとられて行く中で、小さい悦子の身体だけをしっかりと掴みこんで、荒れた不毛の野に必死に立っている。

12) 大原泰恵, 「ひとりの女の生き方」, 『知識』, 1980, 10月, P.250

도모는 첩에게 빠진 남편을 볼 때면 몸값으로 쓰고 남은 돈으로 딸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때도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에츠코의 장래를 생각하면 그녀의 결심은 무너졌다. 자신만 참으면 벽촌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지위와 재산이 있는 아버지의 딸로 넉넉하게 자라는 편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자신의自我가 희생되더라도 딸의 미래를 위해 참으려했던 도모의 선택이었다. 따라서 고통을 감수하며 키운 에츠코는 법조계에서 이름난 일류변호사의 아내가 되었다. 도모는 그러한 딸의 모습이 자신의 불행을 보상해 준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했다.(『여자의 일생』, 전집6, P.116) 이처럼 도모는 자식에게 自我를 전달하는 대리만족의 간접적인 충족을 맛보았다.

도모의 또 다른 自我회복은 이상한 성격의 장남 미치마사(道雅)에서 연유된다. 자존심 강한 남편은 불구자적 성격의 아들이 집에서 은거하듯 지내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겼고 도모 역시 “왜 저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여자의 일생』, 전집6, P.52) 하는 혐오감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다. 그러나 도모는 자신의 自我를 희생하더라도 아들의 행복을 찾아 주려 고심한다.

적어도 미치마사에게 처를 갖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해 평범한 남자의 생활만은 누리게 해주고 싶다. (『여자의 일생』, 전집6, P.52)

せめて道雅にも妻を持たせ、子を生ませて男並みの生活だけは与えてやりたい。

도모는 비정상적인 아들을 두 번이나 결혼시키고 그의 아이까지 갖게 할 정도로 자신의 정력과 自我를 소모했다. 도모는 펼쳐보지도 못한 자신의 自我를 아들에게 전이함으로써 被하지 않는 盛함을 터득했으며 보dana는 만족을 얻었다. 도모의 自我犠牲을 통한 또 하나의 대리 만족은 손자 다카오(鷹夫)였다. 도모가 미요를 미치마사의 후처로 필요하다고 원했던 것은 또 하나의 손자인 다카오를 위해서이기도 했다.(『여자의 일생』, 전집6, P.56) 이처럼 도모가 손자에게 기울인 애정과 관심은 계속해서 며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중압감과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도모는 자신의 自我와 자유를 잃더라도 어린 손자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도모는 전이를 통해 자신의 自我와 자유를 손자에게 전달시키고 새로운 충족감을 만끽하려한 것이다. 따라서 그 행복감은 손자와도 같이 느끼는 결과를 낳았다. 자신을 억제하며 참는 것은 불행만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만약 도모의 지혜가 부족했다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自我가 희생되는 아픔만을 낳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모는 전이라는 대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모두가 기쁨에 젖는 행복을 맛보려했다. 도모는 자신의 自我를 자식과 손자에게 전달시킴으로 그녀의 自我에 생명을 불어넣은 셈이다.

1.4. 自尊을 향한 노력

도모는 한 때 간접적인 自我만족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도모는 대리만족만으로 자신의 自我를 채우려했던 것일까? 도모는 질투와 증오 협박과 배신이라는 심적 고통 속에서도 自我를 억제하며 <집>을 위해 첩을 고르는 신중함을 발휘한다.

저런 아이가 집에 들어와 점점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도모는 오한이 나며 이 선택을 자신에게 맡긴 남편에게 감사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여자의 일생』, 전집6, P.16)

あんな娘がうちへ入って、だんだん大きくなっていったらと思うだけで俺はさむけ立ち、この選択を自分に委せた良人に感謝したい気持ちになった。

도모는 남편을 따르는 것이 곧 집안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남편의 잔인한 명령에 복종하며 自我를 억제하는 고통보다도 직접 참한 아이를 고를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고마움을 느끼는 희생정신을 보인다. 도모가 첩에게 느끼는 증오보다 집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과 그것을 실천하는 생활태도 때문이었다. 남편과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도덕으로 엄하게 자신을 묶어 누구에게나 흠 잡히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고 가사에 마음을 쏟고 살고 있었다. (『여자의 일생』, 전집6, P.12) 이처럼 도모는 자신의 自我와 自尊보다 희생을 지향하는 현모양처 교육을 삶의 지표로 삼으며 실천했다.

또한 <집>의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도모는 유미를 시집보내면서 가엾게 생각하는 반면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관계가 유미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 가문의 체면에 금이 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복 조카를 짝으로 정한다. 집을 위한 도모의 빈틈없는 치밀함과 노력은 비단 이 뿐만은 아니었다.

만약 미치마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백치성이 심해져 흥폭해지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유지해온 시라카와 가문의 체면은 엉망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 (『여자의 일생』, 전집6, P.89)

もし道雅がこのことに気づいて白痴性をつのらせ兇暴にな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これまで自分が胸一つにたたくて持ちこたえて来た白川家の体面はめっちゃめっちゃに崩れ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

도모는 부자간의 충돌보다 가문의 체면과 명예가 더 걱정되었다. 지금까지 도모가 남편을 포기하며 살아온 <집>은 그녀의 위안처이기도 했다. 도모는 그동안 가문을 위해 자기주장은 전혀 펼치지 못할 정도로 自我를 억제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만약 패륜행위로 부자간이 싸운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십수년간 自我를 억제하며 온갖 노력을 기울인 가문

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일본인이 <집>에 대해 갖는 생각과 비슷하다. 일본인은 집을 폭풍우와 추위, 더위를 피하고 심신을 다스리며 손님을 접대하고 사업을 피하는 장소로 그리고 가문, 가법(家法), 가풍과 함께 하는 <집>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家祿制와 관련된 武士집안의 특징이다.¹³⁾ 따라서 <집>에 관한 이 두 가지 생각은 武士가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도모에게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도모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집> 그리고 목숨보다도 소중한 가문의 명예가 존재하는 <집>을 결코 배반할 수 없었다. 도모는 자신의 自我를 억제하면서까지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고 싶었다. 이처럼 도모가 집을 지키려 했던 목적은 그녀의 自尊과도 관련이 깊다

도모는 집안의 흥망성쇠를 위해 재산관리를 철저히 했고 그 결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도모는 땅값과 집세 계산을 혼자 맡으며 직접 관리인을 만나 셋집과 빌려준 땅의 운영 현황에 대해보고 받을 정도였다.

도모는 유키토모의 성적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배인의 위치를 장악하고 있다. (『여자의 일생』, 전집6, P.73)

倫は行友の性の対象でなくても最も信頼の出来る支配人の位置を握っている。

설령 도모를 내쫓고 스가에게 재산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도모처럼 충실한 지배인의 위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모는 왜 남편의 애정을 되찾기보다 재산관리에 더 큰 열정을 쏟았을까? 그것은 남편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곧 자신이 속한 <집>의 재산을 늘리는 것과 동일했고 집의 재산이 늘어날수록 자식과 손자들의 장래 위치가 확고해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위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간파했다. 엔치 자신도 도모야말로 펄벅의 『어머니의 초상』에 등장하는 어머니처럼 개척적이고 지적인 여성¹⁴⁾ 이라고 단언한 것은 가장도 하기 힘든 재산관리를 여인의 힘으로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도모에게 자신의 억제된 自我가 재산의 확장이라는 또 다른 自尊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재산관리를 해냄으로써 도모는 상처받은 自我를 극복하고 새로운 自尊을 만끽한 셈이다.

이렇듯 집안의 관리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마련하기까지 도모는 정신적인 측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잠깐만요 곤노(紺野)씨, 당신에게 충고할게 있는데... 스가를 부를 때 마님이라는 표현은 삼가했으면 해요. 이 집에서 마님은 나 혼자니까.” (『여자의 일생』, 전집6, P.82)

“ちょっと、紺野さん、あなたに注意して置けれど..... 須賀のことを奥さんというのは止めて下さい。このうちで奥さんは私一人なのですから。”

13) 芳賀 登, 앞의 책 P.45

14) 熊坂敦子, 앞의 책 P.32

도모는 오직 <집>안에서만 자신의 自尊을 세울 수 있었다. 따라서 사소한 것도 지적 하며 집안의 규율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잠시 서생으로 온 곤노(紺野)에게까지 미친다. 집안 관리는 곧 집안 질서로 이어지며 질서는 언어표현이 흔들리면 바로잡기 힘들다는 도모의 <집>을 향한 굳건한 정신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님은 나 혼자”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을 볼 때 도모가 自尊을 지키려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준다. 절대군주인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은 참았으나 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다는 도모의 강한 자기주장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도모는 자신의 주체성을 바로 세우는 여인으로 거듭 태어난다.

“죽을병이라면 그것을 확실히 통보 받고 싶어..... 죽음이 정해진 이상 나는 해야 할 일이 몇 개나 있으니까” (『여자의 일생』, 전집6, P.118)

“死ぬに極まった病氣だと解ったら、そのことをはっきり報せて貰いたいの..... 死ぬということがきまった上で、私にはして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いくつもあるんだから”

도모는 아픔의 순간에도 자신의 몸을 먼저 살피기보다 아직도 남아 있는 집안 일을 염려한다. 그렇다면 도모가 자신의 병보다 집안일을 더 걱정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집>이 존재해야 자신의 개인적 自我와 自尊도 함께 유지되기 때문이다. 도모에게 <집>이란 가족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조화로움이 숨쉬는 곳이었다. 도모에게 <집>의 붕괴는 곧 자신의 붕괴를 뜻했다. 도모는 이제야 겨우 억제했던 自我를 보상받을 기회를 만들었다. 그 누구도 불가능한 재산관리와 집안 통솔력으로 自尊의 위치를 확실히 정립시키는 꿈같은 현실과 만났다. 그러나 어렵게 되찾은 自我와 自尊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해체될 위기에 다다른 것이다. 따라서 도모에게 집이란 제2의 자신을 탄생시킨 희망이요 기쁨의 터전이었다. 도모의 <집>밖에서의 삶은 암울한 두려움을 예고하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도모는 목숨이 다할 때 까지 <집>을 위한 일을 책임지고 싶었던 것이리라. 그것이야말로 진정 自我와 自尊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로 남기 때문이었다.

1.5. 굴레에서 자유로

도모는 과연 自我를 억제하며 대리만족과 自尊을 향한 삶을 어떻게 마감하고자 한 것일까? 도모는 근처 집들에서 번져 나오는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그것은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가 아닌 조화로운 집의 실현이었다. 그러

나 도모가 그토록 원했던 조화로운 집의 실현은 이루어진 것일까?

자신이 죽은 뒤에는 손자 한 명 한 명, 스가와 유미 그 밖에 이 집과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인정한 것이다. (『여자의 일생』, 전집6, P.121)

自分の亡い後は孫の一人一人、須賀や、由美、その他のこの家に縁のものにわかれ与えて貰いたいと認めてある.....。

도모는 평생을 바쳐 만든 집의 허무함을 안타깝게도 죽음에 임박해 깨닫는다. 그것은 아마도 죽을 날을 선고받자 타인보다도 자신의 삶을 먼저 살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도모는 억제되었던 자신의 自我를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실현하려 했다.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自尊을 위해 모았던 돈을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줌으로써 <집> 안에서 느낀 인공적인 생활방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도모가 <집>에서 인연 있는 사람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그 만큼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였다. 도모는 그들에게 돈이라는 매체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조금이나마 전하려 했다. 그들의 기쁨이야말로 도모가 억압을 느꼈던 自我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도모가 그 돈을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주체성과 의지를 비로소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금전 분배는 도모가 자신의 의지를 처음 싹틔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모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한 自由는 비단 비밀스럽게 만든 돈을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결코 장례식따위 하지 말아요. 사체를 시나가와(品川)의 바닷가에 갖고 가 바다에 침병 버리면 충분해요.” (『여자의 일생』, 전집6, P.122)

“私が死んでも決してお葬式なんぞ出して下さいますな。死骸を品川の沖へ持って行って、海へざんぷり捨てて下されば沢 山でございますって。”

한마디로 도모는 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도모는 평생 자신의 自我를 억제하기만 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둔 탓일까? 도모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그대로 밝힌다. 도모는 순종적인 아내였으며 ‘참고 참아온 최후에 보인 격심함이 너무나도 애처로운 항의’¹⁵⁾ ‘복수의 딸’¹⁶⁾ 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도모의 일생은 인고의 삶과 유키토모를 향한 복수심을 담은 견해라고 쉽게 단정 짓기 어렵다.

15) 村松定孝, 「女流作家の心象と手法-円地文子の場合に関して」 『国文学解釈と鑑賞』, 1963, P.155

16) 奥野健男, 「素顔の作家達」, 1978, P.140

작가 엔치는 어떻게 읽든 관계없으나 자신 속에 참고 참았던 것이 자신의 의지를 벗어나 원하는 말로써 표출된 것¹⁷⁾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인고의 삶 속에서 억제되었던 自我가 시원스럽게 분출되어 자유를 되찾은 것은 아닐런지. 도모는 自我를 억제하고 대리만족과 自尊을 향해 노력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체적으로 발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자신을 바다에 버리라는 말로 자기주장을 과감히 표현하기에 이른다. 그 뿐인가 장례식 따위 하지 말라는 도모의 마음은 남편과 같이 무덤 속에 묻히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은유적 선언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도모는 집에서 영원히 탈출해 자유의 몸이 되려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로 엔치의 三部作 중 하나인 『무지개와 수라(虹と修羅)』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시게코(滋子)의 말을 통해 도모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신이치 나 당신에게 부탁이 있는데 만약 이 병으로 내가 죽더라도 무나조오(宗像)의 무덤에 만큼은 넣지 말아줘요.”(『무지개와 수라』, 전집12, P.291) 이처럼 도모는 강한 복수심과 반항의 감정보다도 죽어서까지 같은 곳에 묻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다. 도모는 죽어서까지 봉건적 제도와 自我를 억제해야 하는 고통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겨우 어렵게 되찾은 自我를 다시 무덤에 가지고 가 반환해야 하는 억울함이 배어있었기 때문이다. 도모의 발언은 <집>이라는 틀에서 진정 해방된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는 결론이었다. 때문에 그녀는 “자 곧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늦어지니까”(『여자의 일생』, 전집6, P.122) 라며 죽음은 물론 살아있는 짧은 시간조차 자유를 누리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도모가 자신의 사체를 확 버리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빈껍데기보다 정신적 自我를 되찾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은 아닐까? 또 지금껏 큰소리 한번 칠 수 없었던 도모가 남편에게 한마디 던짐으로서 답답했던 가슴이 후련해지는 통쾌함을 느끼려했음을 보여준다.

1.6. 결론

『여자의 일생』의 여주인공 도모는 남편의 지속적인 애정을 구하기 위해 自我를 버리고 첩을 구하는 헌신적 여성이었으며,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수동적 여인이었다. 그녀는 질투와 분노의 감정이 솟구쳐도 자신의 감정만을 억누를 뿐이었다. 도모는 자신의 自我를 회복하려는 능동성조차 발휘하지 않았으며, 自我계발과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직 끈질긴 인내심으로 自我와 自尊을 통제하며 삶을 지탱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도모는 거부당한 남편의 애정 때문에 억눌러야만 했던 自我를 자식과 손자에게 전달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자신의 自我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녀

17) 熊坂敦子, 앞의 책 P.32

는 자신의 自我를 자식에게 전함으로써 간접적인 만족을 얻을 줄 아는 슬기로운 어머니였다. 도모는 대리만족만으로 생을 마감하려했던 것은 아니다. 도모는 <잡>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것은 통솔력과 재산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自我와 自尊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도모는 억압과 고통도 자신의 주체성과 自我實現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현명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自我를 한번도 표출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 도모는 삶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自我에 눈뜨기 시작했다. 도모는 새롭게 찾은 自我를 과감히 표출하며 自尊을 되찾으려는 노력도 했다. 도모는 自我와 自尊은 억제하지 않고 밖으로 표출할 때가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죽음직전에야 비로써 깨닫게 된다. 결국 도모는 집과 제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고 뒤늦게 自我와 自尊의 능동성을 발휘한 여성으로 평가된다.

【參考文獻】

- 亀井秀雄／奥野健男, 『円地文子』, 奥野健男作家論集 1977
- 吉田精一, 「円地文子」 『吉田精一著作集 第十卷』, 桜楓社, 1981
- 吉田精一, 「現代文学と古典」 『吉田精一著作集 第二十三卷』, 桜楓社, 1981
- 亀井秀雄／小笠原美子, 『円地文子の世界』, 創林社, 1981
- 富家素子, 『母・円地文子』, 新潮社, 1989
- 古屋照子, 『円地文子-妖の文学』, 沖積舎, 1996,
- 須浪敏子, 『円地文子論』, おうふう, 1998

要 旨

『女坂』の女主人公である倫は妻として夫の絶え間ない愛情を得るため自我を捨てて妾を探補献身的な行

動をやまない女性だった。倫は自分の自我を回復しようとする積極性さえ見せなかった。しかし、倫が拒否された夫の愛情のため抑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自我を子と孫に伝える新しい方法を模索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の自我に生命を吹き入れることができた。倫は自分の自我を子に伝えることによって間接的な満足が得られることを理解する賢い母であった。

また、倫は家の名誉と体面を守るため自分の自我を抑制した。しかし、一方で家の仕事は倫に統率力と財産管理の能力が発揮できる自我と自尊のもう一つの表現でもあった。倫は抑圧と苦痛、自分の主体性、自我表現の機会にする賢明な女性だった。

倫は自分の自我を一度も表せなく死を迎えたのではない。倫は生涯が最後を告げる瞬間、始めて自我に目覚めた。倫は今まで自分の主張を広げられなかった受動的な姿から脱皮し始める。倫は家と制度という絆から脱して真の自由を得ようと自我と自尊の能動性を実践した女性であると評価される。

キーワード : 自我、抑制、代理満足、自尊、絆、自由、女性

투 고 : 2003. 5. 31
2차 심사 : 2003. 6. 11
3차 심사 : 2003. 7. 8

住 所: 140-160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52번지 10/2
電 話: 794-3265
E-mail : hwanghaiok@daum.net.